

2012/6/15
여성다문화

2012년 배분사업 간담회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2년 중점추진방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 현황
기관/단체의 의견서
안내사항

*별첨: 2012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및 예산

○ 여성성리사원연봉 → 사회복지연봉 (123만 / 95만 원정액)

⑤ 2012년 이력 연봉 인상
111만 2천원 / 5만 2천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사업본부

① 50% → 기예산사업 : 성장배치 ~

② 25/03/24 / 04/05/08 사업도
시행됨. →

지속가능한 전략적 지역사회 변화 창출

-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전략적 배분사업 개발
- 국민의 공감할 수 있는 배분성과 제시
-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체계 강화
-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변화 유도
- 배분사업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③ 농부다 사업도 (농부다)
시행됨 ~

(4/10/10 TF)

(21/01/13 → 04/05/08 사업도 21/01/13 ~ 04/05/08)

④ 04/05/08 ~ 04/05/08

⑤ 04/05/08 / → 04/05/08 ~ 04/05/08

⑥ 04/05/08 ~ 04/05/08

⑦ 04/05/08 ~ 04/05/08

□ 2005년도 테마기획사업

분야	사업주제
아동청소년	청소년자원봉사캠프
장애인	시각장애인 학습장비 지원사업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한 노숙인 사회복지 지원사업
다문화	이주노동자 귀환 지원사업
	가정폭력 등 이주여성 쉼터 운영비 지원사업
지역	취약복지 기관 행정/회계 지원사업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사업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파견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사회복지기관 단체 운영비지원(협회,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사무기기 지원사업
북한해외	북한 지원사업
	해외 지원사업
기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 지원사업
	에이즈환자 및 HIV 쉼터 운영비 지원사업
	기병엑스포
	이웃사랑공모전

□ 2006년도 테마기획사업

분야	사업주제
아동청소년	방과후 아동통합지원
	시설외소 청소년 자립지원
장애인	장애아동통합보육지원
	취업중심형 장애인재활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이미지 제고지원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
지역	지역사회 노인역량강화 및 노인인식 개선 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사업
	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지원
해외,북한	최빈국·해외동포 밀집지역 주민 역량강화 지원사업
	북한주민 건강지원

061113

□ 2007년도 테마기획사업

분야	사업주제
아동청소년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시애틀) / 청소년 (봉화기이리)
	청소년자립지원사업
농어촌	농어촌복지지원사업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농촌형)
북한	북한주민건강증진사업

□ 2008년도 테마기획사업

분야	사업주제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학습지원사업
	SB7_시소와 그네
농어촌	농어촌이동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
장애인	장애인정보인프라 지원사업
지역	취약복지기관 통합지원사업
	주거복지사업
다문화	다문화 상담지원센터
북한해외	최빈국 아동·여성 교육 및 보건위생 지원사업
	북한주민건강증진사업
기타	2008 행복나눔

□ 2009년도 테마기획사업

분야	사업주제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인턴십 지원사업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발굴 지원)
노인	노인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발굴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발굴 지원)
농어촌	농어촌 이동 빨래방 지원 지원사업
	농어촌도서 복지인프라 지원사업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교육을 위한 자산형성지원(IDA)
	지역단위 복지과제 해결 지원
	휴먼네트워크 지원사업
장애인	장애인의 주거권, 권리보장·차별금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사업
북한해외	북한지원사업
	해외지원사업
기타	긴급한 사회복지 이슈대응 지원

Smart Home

다문화가족

① 원도 → 이현 / 2011년
2010 08월 20일
② 다문화
③ 2011년 / 2012년

□ 2010년도 테마기획사업

분야	사업주제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지역	취약계층 주거복지통합지원사업
	지역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이동빨래방 지원사업
	희망기움 통장지원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 지원사업
	취약복지기관 보호육성사업
	학대받는 소외계층을 위한 쉼터 개소 지원사업
장애인	장애인정보인프라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여성의 출산 지원사업
북한해외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북한주민건강증진지원사업
	해외지원사업
기타	군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타 나눔문화활성화 지원사업

~~8/12~~

○ 이주여성지원 기획포럼
 ○ 인력양성
 ○ 업무지원

○ 09/14일 ⇒ 4월 X

3

기관/단체의 의견서 (여성/다문화)

성명	권오현 외	제안일자	2012 년 6 월 11 일
소속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직책	사무처장
연락처	02-312-1686	이메일	jcmk@jcmk.org

주제 (또는 영역)	-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주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현황/실태 및 문제점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안전교육의 미비, 노동현장의 열악한 조건(주거문제 및 사회보험 미가입 등), 노동권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까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시행되기 어렵다고 본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력할 사업 내용	1.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조사 (노동권인지 정도, 안전교육, 성폭력, 성희롱 관련 포함..) 2.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동 주거시설 지원 사업 3. 이주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사업
비고	

성 명	권오현 외	제안일자	2012 년 6 월 11 일
소 속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직 책	사무처장
연락처	02-312-1686	이메일	jcmk@jcmk.org

주제 (또는 영역)	-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이주민 기본권 보호 사회복지체계 구축 - 이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현황/실태 및 문제점	이주민은 체류자격에 따라서 지원받는 내용이 매우 다르다. 대부분 한국어 교육지원, 일회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쏠려있다. 이주민의 경우 많은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언어지원 등이 되지 않아서 기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모국과 다른 기후와 환경으로 인해 기초적인 예방 의료를 통해 건강 지원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밖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범죄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 보상문제, 안전한 귀국 등에 대해서 지원받기고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력할 사업 내용	1. 공공시설(경찰, 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등) 이용시 필요한 공문서 등 번역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2. 기초적인 건강체크 및 기본적인 예방접종 지원사업 3. 범죄 피해에 따른 구조 지원 체계 구축
비고	

□ 2013년도 배분사업 안내 (별첨)

구 분	사업내용	배분규모	신청 시기	배분신청서 제출처
신청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 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 온라인 접수	2,000만원 이하 [프로그램사업 및 기능보강사업]	2012년 7월18 일~31 일	지회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 대상자로부터 제안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 중앙회는 8월 공모 예정(舊 제안기획사업 형태)	별도지정	별도 공고	중앙회/ 지회
긴급지원 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별도지정	별도 공고	중앙회/ 지회
지정기탁 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별도지정	수시	

④ 리터: 21세기 P.O. 21

□ 소규모 취약기관 지원사업

가. 목적

-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의 배분사업 참여기회 확대
- 사회복지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상시지원시스템 가동
- 복지사각지대의 문제해결과 모금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

나. 지원규모 : 22.8억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 및 단체 - 30인 미만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 1억원 미만인 시설 및 단체 - 최근 1년 이내 모금회 배분 내역이 없는 기관(3백만원 이내 소액배분 제외)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해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계획된 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 지원금액 및 내용

- 기관별 최대 500만원 이내

-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등 일회지원으로 효과가 기대되는 내용
- 기관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내용

※ 인건비, 임차보증금, 차량구입, 시설임소자(개인)는 지원하지 않음

라. 신청시기 : 2012.7.18~31

마. 신청방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개 시도지회

바. 사업기간 : 2012. 10.1~12.31 (4/4분기)

별첨자료

※ 2012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및 예산

□ 2012년 보건복지가족부 역점 추진방향 (2011.12.23 / 보건복지부)

비전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보다 건강한 국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		
주요과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 보건의료개혁 마무리 ❖ 필수 국가 보건의료와 안전관리 강화 ❖ 첨단의료 준비하는 보건산업 육성	맞춤형 복지체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체감도 높은 복지전달체계 마련 ❖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 공공-민간의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 확충 ❖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 보육지원 시스템 내실화 ❖ 아동보호 패러다임의 전환
	정책 추진체계 개선		
	❖ 리베이트 근절 등을 통한 보건의료 투명성 강화 추진 ❖ 국공립병원 경영혁신 ❖ 보건소 기능개편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10년 역점 실천과제 : 한시생계대상자 보호 및 복지 체감도 제고

- 「한시대책 종료 후 공백없는 서민보호」: 정부민간 통합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탈빈곤 촉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조기정착을 통한 성과 가시화,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체감도 극대화
- 「나눔문화 운동 확산」: 휴먼네트워크, 기업·개인 나눔문화 확산

◎ 한시대책 종료·축소 후에도 정부·민간의 통합 보호

- 당초 계획대로 한시생계보호(41만가구)를 폐지하되, 계속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일자리, 민간후원 등으로 연계·지원
 - 기본적으로 가구 특성별로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기존 복지급여를 지속 지원(약 35만가구)
 - 추가적으로, 근로가능 가구는 노인·장애인 일자리를 우선 연계·지원, 근로곤란 가구는 민간후원, 지자제사업 등 지역복지자원을 연계·지원
 - 생활능력이 없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흡수·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의 흡수·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합리화 추진 검토(10. 2월말)

◎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노인)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확대
 - ※ 기초노령연금 : '09년 363만명 (월 8.8만원) → '10년 375만명(월 9.1만원)
 - ※ 장기요양보험 : '09년 28만명 → '10년 38만명
- (장애인) 근로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10년 33만명)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연금 도입('10. 7~)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 ('09 : 18천명 → '10 : 37천명)
 - ※ 자격있는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등급판정기준 객관화 및 심사 강화
-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 CYS-net 확대 등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 ※ 드림스타트 : 75 → 100개소, CYS-net : 97 → 166개소
- (한부모 가족 지원) 18세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10세이하, 4.8만명 → 12세이하, 5.7만명)

◎ **탈수급 축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 (자산 형성) 저소득층의 자립에 기여하는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및 **‘행복키움통장 시범사업’** 추진(2만가구)
- (기업형 자활) 초기투자 확대, **생산품 전국 유통망** 구축으로 소규모 자활공동체 **기업화·규모화** 추진
 - ※ '08년 말 현재 1,046개(6천명)인 자활공동체 활성화로 비재정 일자리 3천개 창출 계획
- (성과관리)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 취업율 등 사업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원하는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 확대
 - (‘09 : 2천명, 2개지역 → ‘10 : 3,200명, 4개지역)
 - ※ ‘09년도 1차 시범사업 성과(9월말 기준) : 취업률 약 26.4%로, 기존 사업 성과(인건비 일률 지원 평균 15%)보다 높게 나타남
- (근로인센티브)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가구에 대한 **한시적(3년) 의료급여** 제공 검토 및 수급자 취업시 **연금보험료 전액(현 50%) 공제** 추진

◎ **보건복지분야 서민 일자리 15만개 창출**

-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 (‘10년 1만개 내외)
 - (1단계 : ‘10)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
 -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제도화 기반 구축
 - (2단계 : ‘11~)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 마련(건강보험급여화, 표준화된 민간 의료보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요양 대상자 확대 등으로 약 5만개 일자리 창출
 - * ‘09년 전체 노인 중 5.4%, 28만명 → ‘10년 7.1%, 38만명
- (재정지원 일자리)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1만개)** 확충 및 **탈빈곤 일자리** 내실화 (자활근로 1.7만개, 자활공동체 광역화·기업화)
- (사회복지시설 인력) 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인력 증가 (1.5만개 내외)
- (규제완화 및 산업지원)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지원,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 (2만개 내외)

◎ **가정내 돌봄에 대한 현금 보상**

- (장기요양) 배우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발하는 **노노케어** 가정에 대한 현금보상 추진 검토
- (0세아돌봄) 소득하위 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친인척이 **일정 교육**을 거쳐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가정내 아이돌봄이 참여 허용 (1.2천명, 월 57~69만원)

□ 2012년 복지예산

◎ 총 복지지출 규모는 92조원

-2012년 복지분야 예산으로 2011년(86.4조 원) 대비 6.4%(5.6조 원) 증액

◆ 복지분야 예산 현황('08~'12년)

(단위 : 조원, %, 기준 : 본예산)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복지분야 총 재정	67.7	74.6	81.2	86.4	92.0
기초생활보장	6.9	7.1	7.3	7.5	7.9
취약계층지원	0.9	1.1	1.5	1.3	1.4
공적연금	21.4	23.8	26.0	28.2	31.4
보육·가족·여성	1.6	1.9	2.4	2.9	3.0
노인·청소년	2.2	3.3	3.6	3.9	4.0
노동	10.5	11.8	12.3	12.6	12.8
보훈	3.1	3.4	3.6	3.9	4.1
주택	14.7	15.0	16.7	18.1	19.0
사회복지일반	0.4	0.4	0.5	0.5	0.6
보건의료	1.2	1.5	1.7	1.6	1.6
건강보험	4.6	5.2	5.4	5.7	6.0
식품의약품안전	0.2	0.2	0.2	0.2	0.2

◎ 복지예산 부문별 내역

▲기초생활보장 7조9,095억 원(지난 해 대비 5.1% ↑) ▲취약계층지원 1조3,886억 원(3.4% ↑) ▲공적연금 31조4,080억 원(11.4% ↑) ▲보육·가족·여성 3조72억 원(4.6% ↑) ▲노인·청소년 4조93억 원(3.4% ↑) ▲노동 12조7,900억 원(1.4% ↑) ▲보훈 4조636억 원(4.9% ↑) ▲주택 18조9,829억 원(5.1% ↑) ▲사회복지일반 5,908억 원(8.3% ↑) ▲보건의료 1조5,626억 원(0.2% ↑) ▲건강보험 6조108억 원(5.3% ↑) ▲식품의약품안전 2,398억 원(4.3% ↑)이다.

◎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

분야		주요 내용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월 266만 원(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서 월 379만 원(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
	교육급여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 부교재비를 연 3만6,000원, 총 27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지급
	의료급여	○만19~24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신규 54억 원, 약 33만4,000명에게 지원
	자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위해 자활사업 대상자를 기존 6만5,000명에서 7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1만5,000가구에서 1만 8,000가구로, 근로소득장려금은 월 21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확대
	나눔문화확산	○8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늘었으며, 지역사회 사각지대 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사회봉사단 Korea Hands(코라이 핸드즈)' 신규 40억 원 등을 포함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2012년 1,800명으로 확충하고, 2014년까지 7,000명으로 단계적 확충하겠다는 계획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9만1,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5만 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
	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월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운영비는 월 37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원 대상 역시 3,260개소에서 3,500개소로 확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40%를 합한 49만4,000명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70%를 합한 60만3,000명으로 확대. 또한 지원액도 연 36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보 육등 통합서비스	○보건·복지·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를 50개소 총 181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요보호아동 및 12~13세 기초수급자 아동에 자산형성기회를 제공하는 CDA 지원 대상을 3만 8,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확대
공적연금		○국민연금급여 지원 대상을 322만 명에서 346만 명(노인 272만 명, 장애인 8만2,000명, 유족 49만 명 등)으로 확대
보육·가족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을 강화(신규 5만3,000명 339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는 1만 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 ○'5세 누리과정'은 기존 소득하위 70% 월 17만7,000원에서, 만 5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 학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도록 확대 시행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은 5만6,000명에서 6만5,000명 2주 57만2,000원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단가를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평가인증 결과 등이 우수한 어린이집 지원 강화, 지원 대상 9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 2012년 3월부터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비 407억 원을 신규 투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으로 새일센터(90개소에서 100개소), 새일여성인턴(3,300명에서 4,200명), 직업훈련(7,700명에서 1만80명), 결혼이민여성인턴(466명에서 583명) 등으로 확대. ○다문화가족사회통합기반 구축 예산 25억 원에서 41억 원, 통역과 번역 지원·한국어지원·이중언어교육 등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예산 465억 원에서 518억 원으로 늘리고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신규 예산 17억 원을 편성 여성·아동 폭력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예방활동 강화(6억 원에서 12억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62개소에서 6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확충(84호에서 124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지원(127억 원에서 130억 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강화(47억 원에서 49억 원)
노인,청소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존 1~3등급(3만1,000명)에서 1~3등급과 중중에 준하는 치매·중풍 등 일부 노인성질환자(32만7,000명, 신규 1만9,000명)로 완화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279만 명에서 386만 명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은 9만1,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증액. ○노인일자리는 재정지원 일자리(19만6,000개에서 21만6,000개) 및 민간분야 일자리(4,000개에서 4천600개)를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을 166개소에서 176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동반자 880명에서 980명으로 확대, 취업연계프로그램 36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의료특화형 아동쉼터 4개소 신규 설치 등 청소년쉼터를 83개소에서 92개소로 늘리고, 청소년 인터넷중독 기숙치료·가족캠프를 256명에서 1,080명으로 확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운영 관련 인터넷게임물 중독성 평가 등을 시행
노동분야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기존 7,400개소에서 8,900개소로 확대해 노무관리지원을 강화하고,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줄이기 상담 지원 사업장을 50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 ○긴급생활비는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통상적인 소득에 비해 3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자녀학자금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의료비 인정범위는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과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인정

보훈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보상금을 224만 원으로 4% 인상, 1급 중상이자 특별수당을 월 31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 이외 간호수당을 확대(월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이상 1급1항 기준)하고, 고엽제후유증 질병확대에 따른 보상금 710억 원을 반영
주택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와 노후 임대주택단지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리지원(구입자금 연 5.2%, 전세자금 연 2.0~4.0%) 등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 ○2012년 2만 호를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비주택(쪽방, 노숙인쉼터 등) 거주자 등을 위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으로 신혼부부 주택을 국민임대 30%로 지원하고,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도 수도권 5% 기타지역 3%로 공급
보건 의료	○민간 병·의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고,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138개소에서 16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강화 ○분만취약지 중 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응급환자 전용헬기 추가도입을 통한 이송 인프라 확대(30억 원에서 54억 원), 농·어촌 응급의료취약지에 대한 운영 지원 강화(132억 원에서 187억 원), 2012년 중증외상센터 3개소, 2016년까지 연차적 15개소 설치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를 구축